

③ 교우집단내의 이성교제 정도가 개인의 이성교제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이성교제 경험자」의 이성교제 지수는 0.49로서 10명의 교우중 5명이 이성교제를 하고 있으며, 「과거 이성교제 경험자」와 이성교제지수는 0.34로서 10명 교우중 3명이, 「이성교제 무경험자」의 이성교제 지수는 0.18로서 10교우중 2명이 이성교제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성교제중인 교우가 많을수록 개인의 이성교제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성교육에 대한 제언

성교육은 생활과 교육의 전영역에 걸친 인간교육이므로 어릴 때 가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시작되어야 하며, 성적인 변화가 두드러지는 청소년기에 중점적인 성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기관을 통한 성교육의 목표는 첫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습관을 기르며, 둘째, 지적 학습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지식을 제공하고, 셋째, 올바른 성의식, 건전한 성태도, 분별있는 성윤리를 기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성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탓으로 성에 대해 부정확하고 단편적인 지식과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통해 성교육을 실시하는데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크다고 본다.

본조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들의 성지식출처는 「서적, 잡지」, 「친구」 등이었고 「학교」나 「부모」를 통한 정확한 지식이 되지 못해 실제적인 성지식 정도가 낮았다. 성행동면에 있어서도 과거 연구와 비교시 현저한 증가추세를 볼 수 있었으며, 특히 이성교제 경험율이 60.8%로 높은 것은 사회적 측면에서 방관할 수 없는 문제로서 낮은 성지식에 비해 학생들의 성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고 본다. 또한 64.8%의 학생들이 성고민을 갖고 있으나 이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불충분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현재까지 단편적으로 행하여온 성교육내용이 학생들의 성문제를 도와줄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실태에 반해 자율화정책등의 사회변화로 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 및 행위가 한층 개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 현시점에서 성교육은 학교교육의 내용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겠다. 따라서 효율적인 성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실정에 알맞은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한 조사연구가 선행되어 성교육의 기초자료로 제공되어야 하겠으며, 본연구도 이러한 목적의 일부가 되고자 한다.

우리나라 대학의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제1권 제1호, 1983.

손 무 인

본 연구자는 현재 우리나라 각급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보건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보건관리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발견되는 문제점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학교보건관리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30개 종합대학, 20개 단과대학, 32개 전문대학의 총 82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보건관리조직의 기능 및 제도 학교보건봉사, 교내환경위생 및 학교보건교육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82개 조사대상대학 가운데 학교보건관리조직이 있는 대학은 73.2%였으며 각급 대학별 보건관리조직분포를 보면 종합대학 30개 대학가운데 보건소 73.3%, 보건실 20.0%로 설치되어 있었고 단과대학에서는 20개 대학중 보건소 30.0% 보건실 40.0%, 전문대학 32개 대학중에서는 보건실 56.3%로 나타나 전문대학에서의 학교보건관리조직이 미비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학교 당국자들의 인식부족에도 원인이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2) 학교자체내에 보건위원회를 갖고 있는 대학은 82개 대학중 22.0%에 불과하여 학교보건관리조직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즉 좀더 효과적인 학교보건관리를 위해 현상태의 시설과 인력을 참작하여 보건사업의 목적설정과 그 발전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감독기관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3) 82개 대학에서 학교보건관리인력중 책임자(소장)를 두고 있는 대학은 13.4%, 학교약사는 9.8%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고 간호원인력은 65.9%로써 실질적인 학교보건관리는 간호인력의 절대적인 참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82개 대학가운데 학교보건관리내용중 학교보건봉사로써 일차진료는 84.1%,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대학은 72.0%, 신체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대학은 68.3%, 예방접종 58.5%, 결핵관리 54.9%, 기생충관리 29.3%, 구강보건관리 9.8%로 나타났다. 또한 교내환경위생관리는 69.5%,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1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 34개 대학중 학생보건비가 학생 1인당, 1,000원 미만인 대학이 47.1%, 1,000원부터 5,000원 미만인 대학이 44.1%, 10,000원 이상인 대학이 8.8%로 나타났다. 각급대학별 학생 1인당 평균보건비는 종합대학인 경우 4,089.8원, 단과대학은 1,617.1원, 전문대학은 475.0원으로써 각급대학간에 차이가 많았으며 종합대학에 비해 단과대학, 전문대학에서는 학생보건관리면에서 소홀히 하고 있음을 예산에서도 볼 수 있다.

(6) 82개 대학가운데 학생의료보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11.0%였고, 전부 종합대학이었다. 학생의료보험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대학(73개대학) 가운데 지정병원을 정해 진료비혜택을 주고 있는 대학이 35.4%였고 본인이 전부 부담하는 경우도 53.7%로 나타났다.

(7) 매년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57개 대학의 신체검사대상자 분포를 조사한 결과 신입생, 재학생, 교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은 21.4%에 불과했으

며, 실시내용중 체질검사 측정보다는 체격검사와 흉부 X-선 검사에 치중되어 있었다.

(8) 정기신체검사에 대한 건강기록부를 비치하고 있는대학은 56개 대학중 6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집단의 건강평가와 학생개개인의 건강문제에 대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되어 보건교육적인 면에서 개인건강에 대한 자각심을 일깨우는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9)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59개 대학에서 남녀학생의 공통된 건강상담내용은 성병, 결핵, 정신과 질환등으로 나타나 예방의학적인 면에서 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10) 교내환경위생관리를 하고 있는 대학은 82개 대학중 69.5% 였으며 담당자 자격내용중 비전문인이 관리하고 있는 대학이 70.1% 로써 학교환경위생관리에 소홀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1) 82개 대학중 학생건강관리 지도방법으로써 '별로 없다'라고 응답한 대학이 53.7% 로 나타났으며 연중 보건사업계획시 이용되는 보건교육방법으로써 적극적이지 못한 경우가 54.9% 로써 나타나 학생건강을 주도해 나가는 조직으로서의 인식과 역할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2) 학교보건관리인력을 위한 보수교육현황은 82개 대학중 8.5% 로서 거의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초·중·고교의 신체검사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논문집, 1983.

송 경 속

본 연구는 초, 중, 고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검사의 실시와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1982년 5월 10일부터 동년 6월 10일까지 서울시내 총 714 개교중 무작위추출한 526개교의 양호교사를 대상으로, 1982년 실시한 신체검사의 실시현황을 응답받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신체검사의 실시율은 체질검사의 경우 총 95.4%, 체격검사의 경우 총 100% 였다.